

고랭지무 출하 동향 및 전망 속보

2015. 9. 14.

KREI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농업관측센터

채소관측실

무

I. 최근 무 가격 및 출하 동향

□ 9월 무 가격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

○ 금년 9월 1~14일까지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 동기 대비 하락

- 9월 1~14일 가락시장 무 평균가격은 상품 18kg 기준 7,734원으로 작년 (9,377원) 및 평년(15,128원) 동기 대비 각각 18%, 49% 낮은 수준
- 상순(1~10일) 8,037원에서 중순(11~14일)에는 6,826원으로 하락

○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

- 완전고랭지(평창, 강릉 등 강원 고랭지) 생육기 작황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
- * 봄 가뭄 이후(6월 중순)에 과종되어 생육 초기부터 작황 양호하고 8~9월 적절한 기상으로 출하단수 증가

II. 향후 출하 전망

□ 9월 하반기 무 출하량 추석 대비 물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많을 전망

○ 9월 하반기(15~30일) 출하면적은 추석 수요 대비하여 작년보다 증가하고 주산지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단수 증가할 전망

- 9월 고랭지무 출하량은 추석 수요를 대비한 출하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에 따른 단수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많을 전망
- 9월 주 출하지역은 평창, 강릉, 홍천, 정선 등 강원 고랭지임.

Ⅲ. 향후 가격 전망

□ 9월 후반기(15~30일) 무 가격은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낮지만
추석 수요로 전반기(1~14일) 대비 다소 상승할 전망

- 9월 후반기(15~30일) 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
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되지만 추석 수요로 전반기(1~14일) 대비
다소 상승한 8,000~9,000원/18kg 수준 전망

Ⅳ. 무 수급안정대책 추진 계획

□ 정부는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9~10월 고랭지무에 대하여 자율감축
및 수매·비축을 추진할 계획

- 향후 고랭지무 과잉 생산에 대비하여 농협 및 산지유통인이 참여
하는 자율감축(2~3천 톤 내외)을 추진(9월 셋째~넷째 주)할
계획임.
- 또한 추석 수요가 끝나는 9월 하순 이후 고랭지무 가격 하락에
대비하여 8천 톤 내외를 수매·비축할 계획임.